

카드사 뭉쳤다... 앱 하나로 모든카드 연동 '오픈페이' 시동

여신금융협, 연동규격 개발 입찰 네이버·카카오페이 등 대적 일환

업계, 페이 개방시스템 합의 했지만 고객이탈 등 우려에 실제참여 고심 연말·내년초 계 서비스 시작될 듯

날로 성장하는 빅테크 업계에 대항하기 위해 카드사가 뭉쳤다. 카드업계는 연말까지 카드사 간 간편결제(앱카드)가 호환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하나의 앱에 다양한 카드를 담아 쓸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은행권의 '오픈뱅킹'을 비롯해 네이버·카카오·삼성페이 등 타사 결제와 연동되는 시스템과 비슷한 개념이다. 현재는 각 카드사의 페이 결제 앱에서 자사 카드만 등록해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신한카드의 '신한페이' 앱에서는 KB국민카드의 연동이 불가능하며 신한카드만 등록해 사용할 수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현황(일평균 기준)〉

(단위: 만건, 억원)

구분	2019	2020	증감율(%)
이용건수	1007.7	1454.8	44.4
전자금융업자	424.4	747.5	76.1
휴대폰제조사	386.2	448.5	16.1
금융회사	197.1	258.8	31.3
이용금액	3171.5	4492.3	41.6
전자금융업자	1199	2052.4	71.2
휴대폰제조사	899	1071.2	19.2
금융회사	1073.5	1368.8	27.5

/한국은행

있다. 하지만 카드사 간 간편결제 서비스가 마련되면 하나의 간편결제 앱에 타사의 신용·체크카드를 연동해 쓸 수 있어 범용성이 한결 높아진다.

지난 5월 카드업계가 이러한 페이 개방 시스템 구축에 합의한 이후 최근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 간 상호 호환 등록을 위한 연동규격 및 표준 API(응용 프로그램환경) 개발 추진' 사업에 대한 입찰 공고를 냈다. 오는 27일 대상 업체가 선정되면 본격적인 연동규격과 표준 API 개발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 같은 카드업계의 움직임은 네이버·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업체의 간편결제 시스템에 맞서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가 비대면 거래를 가속화하면서 지난해 간편결제 서비스 하루평균 이용 건수는 1455만8000건으로 전년 대비 44.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가운데 카카오페이·네이버·파이낸셜 등 전자금융업자를 통한 결제가 747만5000건으로 절반 수준을 넘겼다. 금융사를 통한 결제는 258만8000건에 그쳤다.

일평균 이용금액 역시 4492억원으로 1년 전보다 41.6% 증가했는데 이 중 전자금융업자를 통한 결제가 2052억4000만원에 달했다.

소비주도층으로 떠오르는 MZ세대 역시 빅테크 및 핀테크 플랫폼에 익숙한 것으로 나타나 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이달 MZ세대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96.2%의 응답자가 간편결제(송금) 이용 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 핀테크 플랫폼을 사용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60.4%의 응답자가 은행 앱을, 48.6%가 신용카드 앱을 이용한다고 답했다.

카드업계는 이번 페이 개방 시스템에 합의하면서도 실제 참여하는 시간을 두고 지켜본 뒤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하나의 앱에서 모든 결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 고객 이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금융지주계열 카드사의 경우 앱카드에 은행, 증권 등 타 서비스를 연계해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반대의 경우 그렇지 못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19일 "플랫폼의 범용성을 넓혀 보다 많은 고객을 끌어 들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금융지주 계열이 아닌 카드사의 경우 앱카드 내 연계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페이 개방 시스템의 효용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카드사별 페이 플랫폼이 마련돼 있지만 영향력이 매우 낮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빅테크의 입지가 공고해 이 흐름에 대항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페이 개방 시스템 구축을 맡게 될 업체는 최대 3개월간 시스템을 개발해 오는 11월 말까지 호환 등록 규격과 표준 API 개발을 마친다. 이르면 오는 12월이나 내년 초 실제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권소원 기자 think@metroseoul.co.kr



'폭염' 선별검사소, 운영 임시중단

경보 발효로 인해 14시부터 16시까지 운영이 중단돼 있다.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역 앞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가 폭염

/뉴스1

10년간 창업·벤처 생태계 2.8배 성장

중기부, 창업·벤처종합지수 개발 기업·투자·정부 지수, 26개 지표 종합 기업지수 1.4배, 투자지수 4배 성장

종합주가지수 방식의 '창업·벤처 생태계 종합지수'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탄생했다.

새로 나온 창업·벤처 생태계 종합지수(창업·벤처종합지수)는 기준년도인 2010년(100) 대비 2020년 현재 284.7로 10년새 2.8배 올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벤처투자와의 함께 '창업·벤처 생태계 종합지수 개

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 기업, 투자, 정부 3개 지수와 26개 지표를 종합한 창업·벤처종합지수를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벤처투자에서 발표를 겸한 세미나를 열었다.

창업·벤처 업계 동향과 생태계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계량화한 지수 개발에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선우 박사팀, 한국산업기술대 고혁진 교수, 서울과학기술대 안용길 교수가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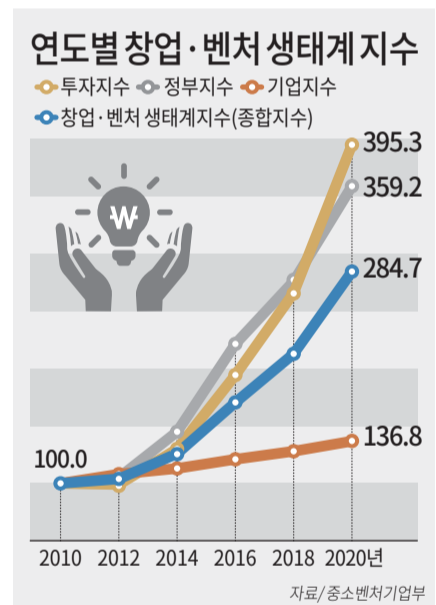
창업·벤처종합지수는 기업지수, 투자지수, 정부지수로 각각 구성돼 있다.

기업지수에는 ▲창업기업수 ▲벤처기업수 ▲벤처전역기업수 ▲벤처기업 고용 ▲창업률 등 10개 지표가, 투자지수에는 ▲투자기관수 ▲벤처투자 기업수 ▲벤처펀드 투자금액 ▲IPO 회수기업수 등 9개 지표가, 정부지수에는 ▲정부 창업지원 예산 ▲모태펀드 출자금 ▲벤처펀드 결성금액 등 7개 지표가 각각 포함돼 있다.

우선 개별지수 중 기업지수는 2010년 100에서 2020년 136.8로 10년새 1.4배 성장했다. 이 기간 전역벤처기업수 지표가 211.1로 가장 많이 오른 영향이 컸다. 벤처기업수도 160.3으로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전역벤처기업은 2019년 현재 617개, 벤처기업은 2020년 기준으로 3만9511개로 각각 집계됐다.

투자지수는 2020년 395.3으로 3개 지수 중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특히 회수금액 지표가 무려 822.4로 10년새 가장 많이 오른 영향이 투자지수 상승을 주도했다. 투자기관수도 471.8을 기록했다.

정부지수는 2010년 100에서 2020년 359.2로 10년 동안 3.6배 성장했다. 중기부의 창업기업 지원 예산만 지난해 9976억9000만원으로 1조원에 바짝 다가서며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한 것이 정부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정부지수에



포함된 창업기업 지원예산 지표는 693.1을 기록했다.

이처럼 2020년 현재 ▲기업지수 136.8 ▲투자지수 395.3 ▲정부지수 359.2를 포함한 창업·벤처종합지수는 284.7을 기록했다. 종합지수 산정시 가중치는 기업·투자지수 각각 40%, 정부지수는 20%를 적용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선우 박사는 "연구 결과 정부지수가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기업지수의 증가율은 낮았다. 이는 우리나라의 창업·벤처 생태계 성장에 정부와 투자자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면서 "이번 연구는 창업·벤처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지표를 발굴하고 이를 지수화해 시계열적인 변화 추이를 알기 쉽게 나타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충분한 시계열 확보 및 지속적인 지표 발굴 필요 ▲성장이 부진한 지표에 대해서 심층진단을 통한 개선방안 수립 필요 ▲창업·벤처 생태계 지수(종합 지수)의 계층 다양화, 확장 및 역동성(혹은 활력) 지수 도출 등은 향후 과제로 꼽혔다.

/김승호 기자 bada@

온·오프라인 맞춤형 개인쇼핑몰 창업

창업비용 99만원

나만의 맞춤형 개인 쇼핑몰 제공 평생 수익 창출

200여개 흥삼제품 +3만여개 인기상품 +자체상품 등록 판매가능

25년 역사 브레인 TV 방송국소유 핫터그룹

대한흥삼주식회사/㈜핫터라이프 T.010-4480-0045